

농촌·섬 떠나는 교사들... 대체 교사도 없다

전남교육청 올 2월 240명 명퇴 수용... 교육 공백 불가피 코로나 등 환경 변화·교권추락에 연금법 개정도 '한몫' "수급 여건 고려 인원 조절... 격오지 근무 개선 등 대책을"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사가 늘면서 교육 현장에 대체 교사 미충원 등 교육과정 운영 공백이 빚어지고 있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전남지역에서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신청해 허용된 교원은 유·초등 77명과 중등 163명 등 총 240명으로 집계됐다.

명퇴 교원 중 대다수는 1960년대 초반 출생으로, 교원 정년(만 62세)을 3~4년 가량 앞두고 교직을 떠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명퇴 신청 사유로는 '건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명퇴 교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논의가 진행됐던 2015년 2월 말 42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후 2016년 2월 114명, 2017년 2월 155명으로 줄어든다 2018년 2월 184명, 2019년 2월 264명, 2020년 2월 278명 등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원의 명퇴 증가는 코로나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와 교권추락 등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을 전격 도입하고, 방역 업무 등에 대한 부담이 늘면서 고령의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기에 추락하는 교원 역시 명퇴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019년 스승의날을 맞아 실시한 인식 조사에서 설문 참여한 교사의 89.4%가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을 교원 명퇴 증가 이유로 꼽았다. 73.0%는 '학부모 등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을 들었다.

이와 함께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2016~2021년 퇴직하는 공무원은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최근 명퇴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교육 당국은 추정했다. 2022년부터

2034년까지 퇴직한 공무원은 2~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이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증가세에 교육 당국은 당황해 하는 분위기다. 명퇴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의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가 있고, 교육 과정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과 섬이 많은 전남지역의 특성상 교사들이 격오지(협지) 근무를 꺼리는 상황이라 기간제 교사 충원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다수의 명퇴자가 섬 지역 등의 근무 처리가 돌아오자 명퇴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로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8월 신청자 중 30.3%만 수용한데 이어, 올해 2월에는 중등 신청자 265명 중 163명(61.5%)만 선정하기도 했다.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 여력과 교사 충원 등 인사 요건을 따져 엄격하게 심사했다는 게 교육청의

전언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50대 후반 나이대 교원들의 명퇴 신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명퇴 신청인원을 맞추고, 교원 수급상황을 고려해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열악해진 교단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교사가 학교를 떠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명퇴에 따른 교육 운영 공백의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재활용 무인회수가...포인트 쌓이네 광주시 동구가 재활용을 실천해 돈을 버는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인 '네프론'을 설치했다. 광주지역 자원순환해설사들이 21일 오전 동구 증심사 입구에서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네프론' 사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네프론은 재활용품을 넣으면 개당 10포인트가 자동 적립되는 자판기형식의 기계로 2000 포인트 이상이면 환급이 가능하다. /김대성 기자 jeans@kwangju.co.kr

25세 이상 병역미필자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도 5년 이하 복수여권(첫 사용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이 발급 가능하다.

21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병역미필자도 국외여행허가여부와 무관하게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는 1회 사용이 가능한 단수여권이 발급돼 왔지만 폐지됐다. 다만 여권의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는 국외 출국 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코로나 비대면 수업에 학폭도 '비대면' 진화

광주 초4~고2 설문 사이버 괴롭힘 증가...물리적 폭력은 감소

광주지역 일선학교 현장에서 코로나19 비대면 수업 영향으로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은 낮아진 반면,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사이버 괴롭힘 등 정서적 유형의 학교폭력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시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9만 9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4일~10월23일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를 본 적

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0.9%(896명)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학폭 피해 응답률 1.6%(1895명)보다 0.7% 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이처럼 학폭 피해 응답률이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데 따라 학생 간 접촉이 감소한 것도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교육청 관계자에서는 분석하고 있다.

학폭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35.2%), 집단따돌림 및 괴롭힘(26.2%), 사이버 괴롭힘

(11.5%), 신체 폭행(7.0%), 스토킹(6.1%)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 유형은 학교의 같은 반 학생(45.9%), 학교의 같은 학년 학생(29.4%)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장소는 교실 안(32%), 복도(10.7%), 사이버공간(9.3%) 순으로 드러났다. 피해 시간은 쉬는 시간(35.4%), 학교 이후 시간(19.2%), 점심시간(10.6%) 순이었다.

시 교육청은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학교현장의 특성을 고려,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 초교 무상 우유급식 올해부터 9만3000명 대상

오는 3월부터 전남 지역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상 우유 급식이 실시된다.

2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무상 우유 급식 대상자는 전남 초등학교 전체 9만 3000여 명이다. 학생 1명이 방학 기간 등을 제외하면 190일간 매일 개당 430ml(200ml) 하는 우유 1개씩, 연간 8만1700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여기에 드는 예산 75억여 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된다.

도 교육청은 무상 우유 급식으로 필수 영양섭취가 필요한 초등학생들의 성장기 발육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우유 소비 증진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낙농산업 안정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특수교육대상자 등 기본 지원 대상자들에게 무상 우유 급식을 했다.

또 전남도와 협업체로 학생 수 240명 이하 학교 학생들과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3자녀 이상 가구 자녀에 계까지 대상자를 확대해 지원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무상 우유 급식 대상자 확대를 위해 전남도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위기 청소년 생활비 지원 광주시 북구 9일까지 접수

광주시 북구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생활비와 학비 등을 지원한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다음달 9일까지 '2021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비, 건강검진비, 학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9~18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등으로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만점기준에 따른 중위소득 72%(생활, 건강지원은 65% 이하) 이하 가구다.

지원내용은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기타 등 8개 분야별로 월 10만원부터 연 350만원 이내 금전이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이나 보호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오는 3월 중 적격여부 등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가 확정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교육지원과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Passion
Vision
Truth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인문	신학과	13	1	
	한국어교육학과	4		4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15	1	
사범	유아교육과	2		1
예능	음악학부	8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2(화) ~ 25(월)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2시

대학원 추가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26
		성경연구학과(Th.M.)	2
		신학과(Ph.D.)	3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3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3
		신학과(Th.M.)	4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3
		상담심리치료학과(M.A.)	8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6
		재활심리치료학과(M.A.)	5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8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17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8(월) ~ 27(수)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2시 30분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0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원서접수: 2021. 1. 18(월) ~ 27(수)
·전형일: 2021. 1. 29(금) 오후 3시

www.kwangshin.ac.kr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